

# 진실은 묻히고 가설이 꽃피는 천이백년

## 이백과 두보의 대담

허세욱

고려대 교수 · 중문학



**“마흔아홉살 때 저는 감숙땅을 떠들다가 성도 완화계에서 초당을 짓고 이 한몸 비바람 피하면서 깃들 곳 마련했어요. ‘지붕에서는 삼대 같은 빗줄기가 후드득 떨어지고, 긴 밤 뜬 눈으로 지새느라 잠들지 못한’ 그런 생활이었지요. 겨우 미관말직이나 전전하다 날이 저물었고, 슬프게 낙화유수를 읊었지요.”**

두보

이태백(이백)이 인간세상을 떠난 지 1천2백38년째, 두지미(두보)가 세상을 하직한 지 1천2백30년째, 그들은 뜻밖에 한국 시인 허세욱의 부름을 받고 그것도 난생 처음 한국 니들 이를 챙기느라 부산했다. 고원과 평원, 다시 황해와 한강을 건너 서울에서도 역삼동 궁벽한 골목을 찾느라 낮이 힘겨운 모습이었다.

생전의 그들처럼 두지미가 선택했다. 770년 형주에서의 모습 그대로 초췌하게 두 어깨를 늘어뜨린 채 하얀 눈을 굴리고 있었다. 약속시간보다 훨씬 늦었지만 길쭉한 팔을 너울너울 좌우로 흔들면서 이태백은 762년 당도(當塗)에서 떠날 때 그 모습이었다.

### 무성한 소문과 오해

**두보**—형님! 이게 몇년 만이요 우리가 745년 늦가을, 지금의 산동성 곤주(荊州) 땅 동문 밖 석문에서 헤어질 지 벌써 1천2백55년이요, 오랜 세월이 흘렀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형님은 지금도 펄펄하군요.

**이백**—생사가 한가지인데 다를 게 무언가?

**두보**—형님이 이승을 떠날 때 저는 성도(成都)에서 빈궁했지요. 때마침 한재로 온 세상이 빨갛게 타 정신이 없었지요. 훨씬 뒤에야 형님 타계 소식을 들었어요. 어찌된 영문이오. 별별 소문이 무성했는걸요.

**이백**—글쎄 나더러 신선이 되어 하늘로 갔다고? 또 귀양길에 분해서 술 마시고 빠져

죽었다고? 채석강에 달구경 가서 물 속에 뜬 달을 잡다 죽었다고? 내가 미친 줄 아나? 나는 나대로 온전한 사람이었거든. 기껏해야 한낱 험객이라면 몰라도, 결국 나도 병이 걸려 손을 들었지.

**두보**—알겠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자아의식이 강했던 말씀이지요. 하긴 나를 두고도 별별 억지가 많더군요.

**이백**—그래 자네는 형주 상강(湘江) 뱃속에서 빼갈에 소고기 먹고 배불러 죽지 않았나? 아니면 큰물에 표류하다가 나무 뿌리에 걸려 죽지 않았나?

**두보**—억울하오. 그때 상강에서 한양(漢陽) 거쳐 장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물은 지고 고혈압은 도지고 거기다 약 한첩 쓸 돈이 있어야지요. (중풍 앓는 뱃속에서)란 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승에서 한 평생, 내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포식사나 표류사가 될 말이오?

**이백**—내가 몇사람이나 죽었다는 말도 떠들더군.

**두보**—그뿐입니까? 쿠데타도 했다고 그러던 대요. 영왕(永王) 따라서.

**이백**—기가 막힐 일이군. 내 비록 어려서 검술을 익혀 협객을 부러워했지만 그때 당나라 선비라면 도포자락에 비수 하나 품게 마련이요, 허리에 긴 칼 차고 거드름 부리기 십상이었거든. 그때 우린 미증유의 성당(盛唐)을 누렸지 않았나? 그런데 동북변방의

절도사 안록산이 755년 11월 15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범양(范陽)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겠나? 안록산 일당은 그해 낙양을 점거하고 자칭 대연(大燕) 황제라 지칭했지. 그 이듬해 동관(潼關)을 무찌르고 그 여세를 몰아 장안의 목에 칼을 대거늘, 우리 현종황제는 양귀비를 데리고 사천(四川)으로 도망을 치다 장병들의 저항으로 양귀비를 처형하는 수위 ‘마외파사변(馬嵬坡事變)’이 일어났지 않았는가? 그해 7월 13일, 장안이 함락되자 현종은 서역땅 감숙(甘肅) 영무(靈武)에서 태자 이형을 숙종으로 즉위 시켰지만 조정의 관헌이 서른 사람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풍지박산이 아니었나?

그때 나는 선성(宣城)에서 나그네로 떠돌았지만 피가 끓어서 살 수가 없었네. 757년 숙종은 위구르족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장안과 낙양을 수복했지만, 안록산의 잔병은 사방에서 준동했지. 그때 현종은 한중(漢中)으로 피난하면서 관군의 정비를 위해 그의 아들인 영왕을 동남지역의 치안과 방위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이 되게 했지. 영왕은 강릉에 진을 치고 내란을 평정하고 국세도 다시 일으켜세우겠다고 기세가 대단했지.

그때 영왕이 동순(東巡)길에 올라 때마침 여산 병풍첩에 은거중이었던 내게 동침을 권했어. 나도 왕명을 따르기로 결심했지. 내 본시 나라에 충성하고 정의에 목숨 아끼지 않음을 신념으로 삼았거든. 그런데 성도에 있던 숙종은 영왕 때문에 제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영왕에게 성도로 돌아와 현종을 알현하도록 명령을 내렸지.

영왕이 동순을 강행하자 숙종은 관군을 동원, 영왕과 막료들을 심양의 감방에 가두고 말았지. 내 나이 선일곱살이었지. 광자의 장군의 구원으로 출감되었고 그 이듬해인 758년 나는 귀주땅으로 귀양길에 올랐지. 가족과 빨뿔이 헤어질 채 삼협의 험한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사면을 받았네.

**두보**는 휘둥그레 눈을 굴린 채 말을 잊지 못했다. 한평생 벼슬을 좇고 다녔지만 번번한 벼슬하나 건지지 못한 채 먹고살기에 바빴던 자신의 처지와 너무 대조적이었다.

### 무한의 대화와 유한의 고백

**두보**—그래도 형님은 하고 싶었던 일을 했

지요. 장안에 있을 때 현종의 환관인 고력사에게 호통치면서 신발을 벗기던 호기도 부렸고, 마지막엔 형님 기질대로 충신 아니면 역적이 될 각오로 덤벼든 게 아니었소. 저는 겨우 미관말직이나 전전하다 날이 저물었고, 슬프게 낙화유수를 읊지 않았겠소.

**이백**—그런데 20세기의 우리 후손들은 남들 머리에 모자 씌우기에 선수들이야. 글쎄 자네의 사천생활을 두고 자네가 지주라고 매도하지 않았나. 뿐만 아니라 자네는 한평생 술꾼으로 살았던 퇴폐시인이라는 거야. 그들의 통계에 따르면 내 작품 1천50편 가운데 음주시가 170편인데 비해 자네는 1천4백여 편 중 음주시가 무려 3백편, 그러니까 자네 작품의 21%가 넘는다는 거야. 결국 자네더러 주정뱅이 시인, 끝내 썩은 쇠고기에 빼갈 먹고 죽었다는 식중독치사설을 들고나오지 않았겠나.

**두보**는 그 초췌한 얼굴을 실룩거리며 안절부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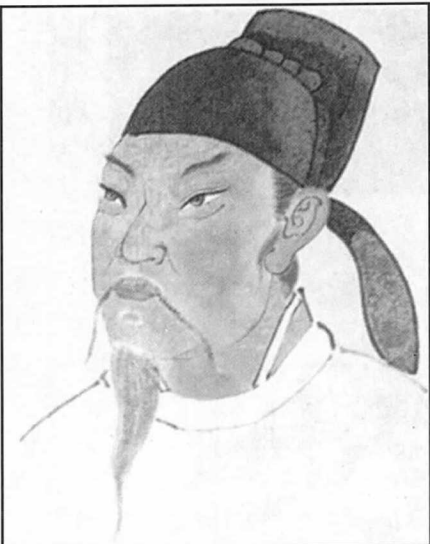
**두보**—형님, 마흔아홉살 때 저는 감숙땅을 떠들다가 성도 완화계에서 초당을 짓고 이 한몸 비바람 피하면서 깃들 곳 마련했어요. “지붕에서는 삼대 같은 빗줄기가 후드득 떨어지고, 긴 밤 뜬 눈으로 지새느라 잠들지 못한”(《가을 바람에 무너진 띠집을 노래한다》) 그런 생활이었지요. 오죽해야 그 시의 끝절에 “어찌 천만 칸 되는/고대광실 짓고 서/온 천하 가난한 선비들/환한 얼굴로 모여/몰아치는 비바람에도/뜨겁없는 산처럼 살게 하리!/아! 그날이 와서 그 집이 우뚝 솟거든/내 집이 무너지고/내 몸이 얼어죽은 들 어떠리” 하면서 피맺힌 호소를 했지 않았겠어요. 또 나더러 주정뱅이라 하지만 나의 음주벽은 현실의 극복이 아니라 현실의 패배였어요. 형님은 무한의 대화였지만 내게는 유한의 고백이었어요.

**이백**—그만하게. 그 사람도 횡포는 이만저만 아니었지. 모택동은 나를 숭배하느라 자네를 상대적으로 깔아뭉개거든. 나를 숭배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나를 열도당도 앓게 ‘인민의 시인’이니 ‘노동자의 시인’이니 하면서 추켜올리기도 했네. <자야>에서 배 짜는 여인의 복소리를 서정적으로 그린 것을 노동의 찬미로 풀이하고 있으니 말하네. 기가 막힐 일이지.

# 책과 괴상

박시백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노래하네. 자네처럼 세상을 눈 찡그리며 보는 게 아니었어. 문학이 자아의 표현, 곧 개성의 기록이라고 굳게 믿네. 그래서 시의 틀을 깨고 빛깔을 지워버리려 애쓰는 거야. 난들 왜 공력을 들이지 않았겠나. 다만 연장을 댄 흔적을 남기지 않았거든. 하기가 그게 더욱 어렵더군.”



이백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거든. 자네처럼 세상을 눈 찡그리며 보는 게 아니었어. 문학이 자아의 표현, 곧 개성의 기록이라고 굳게 믿네. 그래서 시의 틀을 깨고 빛깔을 지워버리려 애쓰는 거야. 난들 왜 공력을 들이지 않았겠나. 다만 연장을 댄 흔적을 남기지 않았거든. 하기가 그게 더욱 어렵더군. 자네는 시의 틀을 근엄하게 지키면서 기와 흥을 불어넣느라 진땀을 빼더군. 자네는 틀림없는 모범생이야.

### 육체적 자아로 버틴 협객의 삶

두보가 모처럼 낯빛을 가다듬고 이백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사실 그들이 이승을 떠난 후 그들에 대한 평가는 줄곧 시소 게 임이었다. 송대까지는 두보가 우세를 보이다 명청대에는 이분천하였다.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지였지만 역시 두보가 한수 위였는데 유가 사상의 내림탓일 것이다.

이백—따분한 얘기 그만두세. 자네한테 사과 할 일이 있네. 우리들이 이승을 떠난 뒤 사람들은 자네를 시성(詩聖), 나를 시선(詩仙)이라 부르더군. 거기다 자네에게 띄우는 모자는 더 많더군. 율성(律聖)이니 시사(詩史)라니 얼마나 대견한가. 그런데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을 거들먹거리고 살았거든. 우리 겨우 열한살 차이지만 나는 개원성당(開元聖唐)을 누리다 갔고 자네는 성당의 내리막길을 울며 살지 않았다. 그런 줄도 모

르고 괜히 잘난 척했지. 내가 자네한테 준 시가 고작 두세편뿐인데, 자네는 절절하게 나를 생각했고 깍듯이 섬겨왔더군. 우리가 산동 석문에서 헤어진 뒤 자네는 장안·성도·기주·진주 등지서 연거푸 날 그리던 시를 썼더군. 그 속에는 심지어 “이태백은 시에 무적”이라고도 했지. 고맙네.

두보—별 말씀은요, 그런데 형님은 도대체 언제 신선이 되셨습니까?

이백—신선이라니. 내 비록 다섯살에 육감을 외고 열살에 백가를 볼 줄 알았노라고 내갈겼고 열다섯살에는 기서(奇書)를 본데다 소매에는 비수를 감추고 다니고 커서 동녘땅을 떠돌 때는 일년 동안에 황금 삼십만냥을 탕진했으니 천하의 협객이 아니면 천년 살 신선으로 알았겠지. 하지만 모두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오죽해야 “석잔 술에 대도를 깨닫고 한말 술에 자연을 껴안는다” 하지 않았나. 그뿐인가. “칼로 물을 베면 물은 다시 흐르고 술로 시름 사르면 시름은 더욱 짙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나. 나는 기껏 협객이요 주광일 뿐이야. 아니 생명적이고 육체적인 자아로 버티고 살았던 거야. 자네도 그런 말 듣지 않았나. 틀림없는 유생 보고 불자라느니 선도라느니.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겠나.

서울 나들이에서 모처럼 많은 오해를 썼었는지 그들은 너털웃음을 남긴 채 사라져 갔다. ❖

